



금융위원회

**보도설명자료**

금융감독원

보도	배포시	배포	2022.11.17.(목)		
담당부서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윤우근	(02-2100-2661)
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노소영	(02-2100-2961)
	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실 장	권성훈	(02-3145-5180)
		담당자	팀 장	손인수	(02-3145-5190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	책임자	국 장	박지선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권홍	(02-3145-7450)

**「퇴직연금 ‘머니 무브’ 파장 우려」 보도 관련(한국일보 11.17일자)**

- ☐ 한국일보는 「퇴직연금 ‘머니 무브’ 파장 우려」 제하의 기사(‘22.11.17.)에서
-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이동(머니무브)이 내달 예정되어 있어,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채권을 시장에 대거 쏟아낼 경우 채권시장 경색과 함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, 사업자와 비사업자간 금리 공시의무 차이로 인한 ‘커닝공시’,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차입규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.

**1. 보도관련 참고사항**

- 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연말 퇴직연금시장 등 자금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, 필요한 부분은 적기대응하고 있습니다.
- 11.17일 주요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간담회\*를 통해, 12월 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, 연말 유동성의 적극적 사전관리 등을 당부하였으며,
- \* 11.17(목) 7개 대표 금융회사 및 3개 금융협회 참석(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)
- 금융위·금감원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금리공시 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도 이미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☐ 아울러 연말까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이상징후 등 필요시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